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집에 일찍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쯤쯤 땀은 양갈래 머리로 저를 반기더군요..  
"여보! 나 이쁘지? 나, 아직도 여고 시절 모습 그대로 같지? 자기야!"  
"아휴..그래..그래..이쁘다 이빠!...배고프다, 밥줘..."  
"오호호호...우리 딸이 나 닮았으면 남학생들이 굴비 엮 듯 줄 설

텐데...."  
"그러게..이쁘다, 이빠...그런데 밥 안먹어?"  
그제야 마누라는 뭔가가 아쉽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거울 앞을 겨우 떠났습니다. 이후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변신한다고 난리 부르스럽니다.  
요즘 애들이 잘가는 동대문 근처 의류상가를 처제랑 오밤중에 겁도 없이 들락날락하면서 호박 같은 똥배 아랑곳 않고, 쫄티에 일명 똥 싹 바지라는 험한 바지 입고 온 집안을 청소하듯 다닌답니다.  
옛것에는 집에 두고 온 서류 심부름을 시켰더니 조신한 치마 차림으로 나온 게 아니라 멜빵이 있는 청바지에, 들성들성 짤 스웨터 그리고 배낭같이 생긴 가방을 메고 어디서 골목 대장하다 온, 열댓살 먹은 애처럼 하고 나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경비 아저씨가, 막내 동생이냐고 하더군요..  
서방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들성들성 흰머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아내는 저러고 다니니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무슨 요리 한 번 칭찬하면 헛 구역질 해달때까지 사흘이고 한달이고 변화 없는 그 식단으로 즐기게 밀고 나가는데 두손 두발 다 들 수 밖에요. 사실 요즘 저는, 부대찌게라는 걸 일주일째 먹고 있습니다. 하긴 신선 초, 함박스테이크라는 걸 분위기가 있게 해주길래 잘 먹었더니 고기 다섯근 사다가 냉동실에 두고 한 달을 질질 끌며 먹인 여자입니다.  
"오호호호...이 거들이 들어가네...아직은 나, 쓸만해..오호호호..."  
방바닥에는 기능성 속옷이라고 적혀 있는, 포장지가 날라 다닌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이쪽 살이 저쪽으로 밀리고 조이고 눌러서 기능성 속옷 역할을 다한 것 뿐인데 아내는 혼자서 감탄사를 내뱉으며 잠이 든답니다.  
아내는 "여보! 이거 맛있지? 나 이빠?? 아직 처녀 같지???" 이 세 마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제 아내의 중중의 공주병을 고칠 용한 의사 아는분 없나요?  
아!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적어도 하루 세 번 이상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가정이 편치 않을 테고, 거짓말을 하자니, 천국의 문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CBS 행복의 편지)

◀남몰래 밤엔 우머의 첫출발▶ 승부

어떤 가풍있는 종가집 맏며느리가 첫아들을 출산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며느리, 여성 상담소에 상담 편지를 보냈다. 얼마 후 상담소에서 보내 온 조언....

" 맛으로 승부하세요 "

|   |   |  |
|---|---|--|
| 교회목표<br>하나님만이<br>삶과 교회의<br>주인   |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br><b>갈보리 교회</b><br>Calvary Presbyterian Church | 교회생활지침<br>누가 10:37<br>*자원함 -섬김과 봉사<br>*의명성 -명예 |
| 제 4권 39호  |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 2002년9월 29일                                    |
|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   |  |

50년만에 본 십자가



북한의 압록강가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땅에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그 할머니는 50년만에 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보기위해 할머니는 매일 2시간의 거리를 걸어서 강가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을 하신 후에 중국을 향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건넌 할머니는 교회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한 할머니는 교회 목사님께 작은 보자기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배고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50년 동안 모아온 십일조의 예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50년 동안 모아온 십일조...  
그 예물 앞에서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그 간증을 들던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다시 강을 건너 북한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눈물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하게 해달라고. . .

엄마가 딸에게

이왕이면 외국에 나가  
똥을 많이 누거나  
갔다 와 보면 버린 것 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음을 알게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 체력의 한계에  
도전해 보아라  
고통보단 희열이 크다  
실패했더라도 넌  
용기있는 자로 살게된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                                 |  |          |
|---------------------------------|--|----------|
| 영광송<br>Gloria                   | "Calvary"                                  | 다 같이     |
| 참회의 기도<br>Confession Pray       |  |          |
| 용서의 선언<br>Proclaim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br>자에게는 결코 죄책함이 없느니라 | 인도자      |
| *찬송<br>Hymn                     | 47장  | 다 같이     |
| *성서교독<br>Response Reading       | 29(시 130)                                  | 인도자      |
| *신앙고백<br>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다 같이     |
| 교회소식<br>Welcome & Announcements |  |          |
| 어린이 시간<br>Sunday School         |  |          |
| 찬송<br>Hymn                      | 93 장                                       | 다 같이     |
| 기도<br>Prayer                    |  | 이재영 집사   |
| 성경봉독<br>Scripture Reading       | 누가복음 15:11-32                              | 인도자      |
| 성가대 찬양<br>Choir                 |  | 나무심자가성가대 |
| 설교<br>Sermon                    | '기다리는 하나님'                                 | 김성국 목사   |
| 찬송<br>Hymn                      | '세상에서 방황할 때'<br>(마지막절은 일어서서)               | 다 같이     |
| 헌금 기도<br>Offering Pray          |  | 인도자      |
| 응답송<br>Response Song            | '이 믿음 더욱 굳세라'<br>(1절:최재학 집사 가족. 2절:다같이)    | 다 같이     |
| 축도<br>Benediction               |  | 김성국 목사   |

## ◆9.10월의 예배위원◆

| 일자 | 주일기도 | 헌금위원 | 안내위원    | 가족찬송    | Tea Time |
|----|------|------|---------|---------|----------|
| 29 | 이재영  | 신경화  | 권용일.이지영 | 노은숙.최재학 | 최재학.권용일  |
| 6  | 김교섭  | 신영화  | 김교섭.정희자 | 민광호.김심홍 | 김경구.김교섭  |
| 13 | 김종건  | 사카시다 | 박병민.이기중 | 박기원.박기해 | 김반석.김성국  |
| 20 | 이광희  | 이기중  | 박상옥.이금선 | 박기창.한정옥 | 김영길.김종건  |
| 27 | 정덕수  | 이지영  | 박정자.김순자 | 박병민.이기중 | 김중우.김종원  |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답살듣는 애정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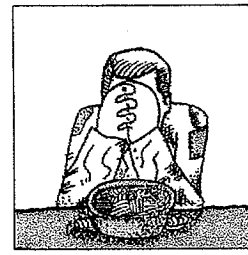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6시

◆소세지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화내는 키워집을 몇번이고 찾아가 마침내 배웠다는 집사님, 지나쳐간 낮 모르는 모녀를 다시 돌아와 태워드리며 잔디깎기 고객을 확보했다는 집사님, 어깨에 통증이 나도록 수천개의 단추를 다셨다는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돌아와 목상하던 월요일 아침, 열심히 사시는 아름다움에 누구라도 눈시울이 뜨거워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자를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 교우소식  
\*윤형권 집사 모친께서 어제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정정하신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요나(박해련 집사 딸). Auckland Philharmonia Orchestra와 협연  
\*협연일정> 10월 2일(수) 11:30am Town Hall.  
10월 3일(목) 11:30am 7:00pm Bruce Maison(Takapuna)
- '이삭줍기'주일: 드러진 Silver Coin은 두 어린이를 위해 보내드립니다  
\*Marjorie Carolino (필리핀). 11살의 여자어린이  
\*Kriengsak Inthapun(타일랜드). 7살의 남자 어린이
- 아동부 방학 Activity  
\*Y4-Y6 Kayak <일시> 화요일(1일) 오후 2시 <장소> Mission Bay  
\*Y1-Y3 영화관람 <일시> 목요일(3일)
- 기억해 주세요: **Daylight Saving Time**이 돌아오는 주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토요일밤에 미리 9시를 10시로 맞추어 놓고 주무십시오
- 정기당회: 월요일(30일). 저녁 7:30
- 금요새벽기도회: 앞길이 캄캄할 때도, 평안중일 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주 금요일 6:00am
- 천선골프모임(예고): 아직 서로가 어색하고 서먹한 사이를 운동을 하면서 조금만 더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주관: 제2남선교회 \*일시: 10월 19일(토) 오전 10:30 \*Takapuna Golf  
\*신청: 권용일. 윤형권. 이재영 집사 \*참가대상: 모두 회비 \$25.00(당회비 fee)  
\*\*\*\*\*



보기 좋은 그릇으로 장식되기 보다는  
배고픈 이들에게 허기를 달래주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국밥그릇이 더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급음식에 비즈니스가 있는 자리보다는  
배고픈 자들의 감사의 기도가 있는 국밥이  
저는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2:21)"